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		
報道資料 [2012. 5. 17.]	보도시점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전화번호	042-481-4841 042-481-4843
	담당자 (e-mail)	전기선(gsjeon63@ocp.go.kr) 조현수(hyun67@ocp.go.kr)	F A X	042-481-4849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정책정보」에 동시게재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 제주의 초기 탐라시대 실체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가치 지녀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동 2696-2번지 일대 선사 유적지와 지식묘 3기를 포함한 21필지(10,279㎡)의 ‘제주 용담동 유적’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제주 용담동 유적’은 주택 건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시행된 구제발굴(救濟發掘·정비와 복원 목적이 아닌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수혈(豎穴·구덩이)주거지 29기와 대형 굴립주(堀立柱·작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서 기둥을 세운 것) 건물지 3동 등 다양한 유구(遺構)가 출토됐다.

이 유적은 기원전 2~3세기 경 탐라 시대 초기의 원형 수혈주거지로서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용담동식의 대형 지식묘가 군(群)을 이루고 있어, 탐라 시대 초기 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개요 1부.
2. 사진자료 1부. 끝.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개요

- 지정 명칭 : 제주 용담동 유적(濟州 龍潭洞 遺蹟)
- 지정 종별 : 사적 제522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 2동 2696-2번지 등
- 지정 가치
 - 제주 용담동 유적은 기원전 2~3세기 경 탐라 시대 초기의 원형 수혈주거지로 한천변을 따라 제주도에서 가장 발달한 용담동식의 대형 지석묘가 군을 이루고 있어, 탐라 시대 초기 소국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지정면적 : 21필지 10,279㎡(문화재구역)
-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 진 자 료



<사진 1. 항공사진>



<사진 2. 출토유물>



<사진 3. 용담동 고인돌(제주도 기념물 제2-5호)>



<사진 4. 용담동 고인돌(비지정)>



<사진 5. 용담동 고인돌(제주도 기념물 제2-6호) >